

『파친코 *Pachinko*』의 ‘장소성’ 서사 연구: - 사람 · 장소 · 환대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현주**

I. 들어가는 말

2021년 11월 미국의 데이비스 지역 초등학교에서 피부색과 자폐증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열 살의 어린 소녀 이사벨라 잇지 티체노르(Isabella Izzy Tichenor)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환대’(hospitality)¹⁾ 대신 일방적으로 부여된 ‘냄새나는 검둥이’(Some

* 본고의 토대이자 분석대상 작품, *Pachinko*(Minjin Lee, 2017)와의 만남을 주선한 전현숙 선생님과 논지 기획의 계기가 된 ‘난민(의) 철학으로서 이렌트 철학의 가능성’에 관한 특강에 초대해주신 ‘경계너머 연구소’의 이항 교수님과 윤성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 부교수

1) 사전적인 의미로는 ‘환대’, ‘대접’, ‘접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령, 한국학술지 인용정보(KCI)에서 2022년 4월 9일 현재 키워드 ‘hospitality’ 관련 논문은 인문학(547편)과 사회과학(6,427편) 분야 등 전체 7,164건이 검색된다. 추천 검색어에 ‘ethics’, ‘immigration’, ‘tourism’, ‘migrant works’, ‘strangers’, 그리고 ‘politics’이 있으며, 대체로 ‘환대산업’, ‘환대기업’, ‘환대지수’, ‘호스피탈리티’, ‘환대의 윤리’, ‘환대 개념’ 등과 결합하여 ‘환대’로 통용되고

Black students are being told they stink)라는 ‘홀대’(inhospitality)의 꼬리표를 달고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무차별적인 집단 따돌림”(It's everywhere.' Fed up with racist bullying ...)²⁾의 희생양이 된 이사벨라, 그녀는 결국 ‘자살’이 아닌 ‘사회적인 타살’(social homicide)을 당한 것이었다.

미국 국가책무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미국의 교내 ‘증오범죄’(hate crimes) 발생건수는 2015년과 2016년에 비하여 2017년과 2018년에 거의 두 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증오범죄’의 대상자는 주로 인종 및 국적과 관련되는 ‘정체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³⁾. ‘증오범죄’란 실제로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적(性的) 취향이 다른 사람들,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범죄와 완전히 다른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기존의 범죄 유형에 ‘선입견’과 ‘편견’이 더해져서 발생하는 범죄를 가리킨다(배정환, 2021, 185-187). ‘선입견’ 및 ‘편견’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인 타살’과 ‘증오범죄’의 근원에는 ‘나’ 혹은 ‘우리’와 ‘다른’ 혹은 ‘구분되는’ 특성을 거부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려는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동조가 뿌리박혀 있다. 특히 젠더, 민족, 인종, 이주, 장애 등과 같이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소수자’로 쉽게 범주화될 수 있으므로 ‘편견’에서 비롯되는 ‘증오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인류 역사상 편견이 없던 시대는 없었으나 ‘장소’의 이동이 보편화된 21세기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의 희생양들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타살’과 관련되는 안타까운 사건 및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은 어떤 함의를 갖는가?

있다.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학술적인 번역 술어로 정착된 ‘환대’를 ‘hospitality’의 등가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List.kci>

2) <https://edition.cnn.com/2021/12/05/us/racist-bullying-school-incidents/index.html>

3) Sourc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s analysis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s School Survey on Crime and Safety

어린 소녀 이사벨라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앗아간 꼬리표, ‘냄새나는 검둥이’는 『파친코 Pachinko』(Min Jin Lee, 2017)에 등장하는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 ... 이곳은 돼지들과 조선인들만 살 수 있는 곳”(The animal stench was stronger than the smell ... even the odors of the outhouses. This place is fit for only pigs and Koreans.)(Lee, 2017, 100)이라는 ‘오염’의 메타포를 소환하게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주류사회가 은밀하게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소수자(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을 왜곡된 이미지의 프레임 속에 가두어 열등감을 촉발시키는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냄새’라는 ‘오염’의 메타포는 공동체 내에서 각기 주류에 속하는 백인과 일본인이 비주류의 경계인에 속하는 흑인과 ‘자이니치’(Zainichi; 在日)⁴⁾에게 주류가 정한 일방적인 방식으로 비주류를 배제시키는 원시적이며 집단적인 가학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냄새’는 달리 말하면 소수자들에게 ‘차별’과 ‘편견’의 프레임을 씌워 ‘진실 왜곡’을 통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입하여 주류 집단 내의 동조의를 이끌어내며 급기야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종의 마녀사냥 수법을 대변하다.

『파친코』의 작가 민진 리(Min Jin Lee)는 이 작품을 집필하는데 거의 30년이나 걸렸다고 한다(Lee, 2017, 482). 작품을 집필한 구체적인 동기는 “일본 내에서 발생한 한국계 일본인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후 투신자살한 사건”(Lee, 2017, 481)과 관련된다. 이 사건 또한 ‘한국계 일본인’ 중학생이 ‘일본’ 내에서 자신의 조부모와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환대받지 못하는 ‘소수자’로서 차별적인 정체성의 프레임에 갇힌 채 희생양이 되었으며,

4) 자이니치(Zainichi): 식민지 시대에 이주하거나 그들의 2세인 한국계 일본인(Korean Japanese People who were either migrants from the colonial era or their descendants)을 지칭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에는 자신들이 문자 그대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foreign resident staying in Japan)을 의미하는 ‘자이니치’로 불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해당 표현은 교포 3세, 4세, 5세에게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귀화가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현재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재일한인(ethnic Korean)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Lee, M. J. (2017).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481.) 그리고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과 범주를 한국인 ‘자이니치’에 국한한다.

‘사회적인 타살’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사벨라의 자살사건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이사벨라와 한국계 일본인 학생의 비극적인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체 내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편견’의 근원적인 본류를 찾고자 민진 리의 『파친코』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적인 삶의 공간 혹은 ‘장소’에 따른 등장인물의 정체성(‘사람’)과 행동 코드를 ‘환대’의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장소’, ‘사람’ 그리고 ‘환대’의 개념은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2021)에서 원용하였으며, 주요 이론 또한 김현경이 인용하거나 논의한 학자나 그들의 관점과 방식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논의의 성격상 『파친코』의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비교 분석보다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조선과 일본 그리고 이주를 꿈꾸는 또 다른 공간 미국이라는 장소가 그들의 삶에서 의미하는 정체성, 즉 ‘장소성’(placeness)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및 행동 코드의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파친코』해석의 관점과 범주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환대하는 혹은 환대받는 디아스포라 문화 풍토의 확산을 통한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낮추고 우리 안의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이주자(migrants)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치를 완화시키고 대신 긍정적인 경험치를 확장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다.

II. 『파친코』와 장소성

『파친코』는 한 권의 책(冊)에 세 부(部)의 소책자가 합본된 미국소설로, 제1권(Book I)은 ‘고향/홈타운(Gohyang/Hometown) 1910년~1933년’, 제2권(Book II)은 ‘모국(Motherland) 1939년~1962년’, 그리고 제3권(Book III)은 ‘파친코(Pachinko) 1962년~1989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인공 ‘순자’(Sunja)⁵⁾와 주요 등장인물의 서사가 ‘장소’와 ‘시간’에 따른 순서—제1권

에서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사건(‘고한수’(Koh Hansu)와의 인연)을 회상하는 4장부터 6장은 예외—로 펼쳐진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 ‘순자’와 그녀의 가족들이 고향인 부산 ‘영도’(Youngdo)와 그곳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후 직면하는 디아스포라적인 삶의 스토리가 물리적인 장소와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인공 가족의 4대에 걸친 핏줄의 역사를 한국계 1.5세 미국작가 ‘민진 리’가 작가 특유의 필치로 그려낸 아름답고도 ... 압도적인 대서사시”(Beautiful.... Lee’s sweeping four-generation saga of a Korean family is an extraordinary epic.)이다⁶⁾.

공간의 이동은 단순하게 장소를 옮기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환대받지 못하는 이주자의 경우는 다층적인 억압에 저항하며 새로운 공간/장소에 머물러야 하므로 그들의 경험치는 근본적으로 원주민의 경우와는 현격하게 다르다. 이주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느낌’(feeling about difference), 즉 ‘이질감’(heterogeneity)이 원주민의 심리 기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자들 중에서 특히 식민지 시대에 지배자의 공간(일본)으로 이동한 피지배자인 이주자(‘순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주자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질감’이 적용되며, 이는 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이질감’은 주류 사회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주자들에게 열등감을 강화시키는 ‘일반화’(generalization) 및 ‘낙인찍기’(stigmatization)⁷⁾ 과정

5)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는 모두 원전의 표기를 우선으로 삼는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처음 언급할 때 한국어 및 영어를 병기하여 표현하며(논의의 전개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해당 도서의 한국어 번역서의 표기와 상이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6) 도서 표지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誌 추천사. (Lee, M. J. (2017).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7) 현대사회에서 낙인으로 취급받는 속성은 1) 신체의 괴물스러움, 2) 정서적인 결함(의지박약, 잘못된 신념 등), 3) **특정한 인종, 민족, 종교—종족적 스티그마—는 가계에 따라 전해지며 가족 구성원 모두를 오염시킨다.**(볼드체는 필자의 것임) 이러한 속성들은 지나치게 눈길을 끌어서 그것을 지닌 사람의 인격을 다른 측면에서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 ... 낙인 때문에 오히려 주목받고 사랑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관심의 대상은 그의 인격 전체가 아니라 인격에서 돌출된 부분, 즉, 낙인이다. (김현경(2021).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지

을 거치면서 주류 집단 구성원들에게 이중의 부정적인 ‘고정관념’(stereotype)을 유발시키는 장치로 변질된다. 가령, 위에서 언급한 ‘냄새’와 관련하여 이주자들에게 ‘더럽다’(dirty, filthy)는 수식어를 붙여서 통칭하며 그들을 공동체 내에서 이질감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여된 불명예스러운 통칭은 이주자들의 자존감을 자극하여 ‘청결’(purity)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된다. 결국 주류 집단은 소수자 그룹의 이주자들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배제(exclusion)하고 격리(segregation)시키는 장소 분화과정(정수열, 2008, 512-513)을 주도하며 제한된 장소/지역에 ‘유포’(within the settled boundaries of Ikaino)(Lee, 2017, 124)시킨다.

소수자인 이주자들을 주류사회와 별도로 격리하고 배제시키는 장소의 분화는 단순한 물리적인 구분 혹은 구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장소는 그 안에 정주하는 사람들과 다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장소는 반드시 그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국가적인 공간의 이동으로 인한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궤적의 변화를 포괄하는 ‘장소가 갖는 정체성’에 관한 담론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소성’(placeness)은 장소와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장소 고유의 특성을 의미(Relph, 2005, 309)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소는 인간과 긴밀하게 연계되며 정체성 형성이나 실존적 선택과 관련되므로 ‘장소성’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이자 정서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임진희, 2019, 272-273).

사람과 장소가 갖는 이러한 상호관련성을 연구의 동인으로 삼아 본 장은 『파친코』의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이주 공간의 이동으로 경험하는 디아스포라적인 삶의 양상을 민족과 거주지 분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다음의 III장에서는 ‘사람’의 태생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장소성’⁸⁾이 함의하는 담론에 관한

성사, 122.)

8) 본고에서 논의하는 민족기반, 거주지분화 기반, 그리고 사람의 태생적인 정체성 기반의 ‘장소성’의 분류는 분석대상 작품 『파친코』의 스토리에 기반한 필자의 분류방식이며, 상호간의 관련

여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민족기반의 장소성

1) 자이니치

『파친코』는 이름 없는 민초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화하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식민지 경험과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순자’를 중심으로 부모-순자-아들-손자 세대를 넘나들며 전개되는 일종의 가족 연대기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일본-한국-미국’ 등 민족을 기반으로 경계를 규정하는 물리적인 장소는 등장인물의 의식과 삶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주인공에게 ‘고향’이라는 공간은 ‘무한한 사랑’과 ‘잠재된 편견’이 공존하는 이중의 경험치를 제공하는 ‘장소의 정체성’, 즉 ‘장소성’을 드러낸다. ‘순자’는 아버지 ‘훈이’(Hooni)와 어머니 ‘양진’(Yangjin)으로 부터 넉넉한 인품과 타고난 부지런함, 그리고 아무진 살림솜씨를 물려받았으며, 환경에 대한 특유의 적응력과 끈질긴 생명력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 ‘순자’가 ‘고향’에서 가족과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경험했던 ‘무한한 사랑’은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의 ‘hometown’이자 ‘motherland’를 의미한다. 하지만 극도의 노동집약적인 삶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가족의 고단한 현실과 아버지 ‘훈이’의 선천적인 신체 장애는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는 “낙인의 가시성”(김현경, 2021, 20)으로서 가히 그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순자’와 그녀의 부모는 고향 ‘영도’에서조차도 (편견을 지닌) 이웃의 눈길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스스로 주목받지 않는 삶을 지향하며 되도록이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의식적인 행동 코드의 전환을 강요당한다. 때문에 고향은 그들에게 의식적으로 ‘비가시적 인’(invisible) 삶을 선택해야 하는 ‘주변인’이자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유도하

성에 입각하여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각론 간의 중첩성을 피할 수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는 ‘잠재된 편견’의 경험치를 제공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장소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순자’의 인생에서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을 연계하는 재일교포 사업가 ‘고한수’(Koh Hansu)와 일본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젊은 목사 ‘백이삭’(Baek Isak)과의 인연은 고향이자 모국인 조선과의 단절을 예고하는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동시에 또 다른 공간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고한수’와의 예기치 않은 인연으로 급기야 임신까지 하게 된 열여섯 살의 어린 소녀 ‘순자’는 더 이상 그와의 만남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다. 어머니 ‘양진’과 동갑인 그는 두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일본인 아내가 있음을 당당히 밝히며 ‘순자’에게 ‘현지처’ 제안을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순간에 ‘순자’는 ‘모욕’ 대신 ‘명예’를 선택한다. 때마침 뱃속의 아이에게 ‘성’(性, family name)을 물려줄 수 있는 ‘백이삭’의 청혼을 수용하며(Lee, 2017, 70-79)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삶의 터전을 이동한다.

이러한 선택의 이면에는 ‘이웃의 눈길’이 다시 한 번 주인공의 삶을 ‘비가 시적’인 방향으로 선화하도록 이끄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진’이 ‘이삭’에게 ‘순자’의 상황을 설명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애비도 없는 아이를 임신한 미혼모’(an unmarried woman, but to bear a child without a husband),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this baby who has no name),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The neighbors will never approve.)⁹⁾(Lee, 2017, 57) 등의 걱정은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 미치지 못하는 피난처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함과 동시에 ‘환대’받지 못하는 새 생명의 인생 또한 간단치 않음을 예고하는 서막처럼 들린다. 이 대화는 ‘이삭’과 ‘순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이끄는 결정적인 대목이지만, ‘순자’와 ‘양진’, 그리고 ‘이삭’ 모두 ‘다 끝난 인생’(Her life is ruined.)(Lee, 2017, 57)에서 ‘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에 암묵적으로 합의한다. 바로 이웃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장소’의 이동을 최적의 처방이라 생각하고 ‘결혼’이란 의식을 통

9) 본고에서 제시하는 번역은 필자의 것임.

하여 그들은 가족 공동체로 거듭난다. 그리고 신혼의 부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오사카(Osaka)로 향한다. “순자는 제 발로 이삭과 함께 오사카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지만, 사실은 고향과 조국에서 추방된 것이나 다름없다. ... 차별적인 ‘이웃의 눈길’은 열여섯 살의 순자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고향마저도 ‘환대’하는 공간이 아님을 그리고 고향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식민지 조선의 미혼모였던 ‘순자’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강요받은 인물인 셈이다”(강유진, 2019, 259).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식민지’ 조선의 ‘미혼모’에게 고향이자 모국인 조선에서 또 다른 종류의 편견과 멸시로부터 자신을 방호해줄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했던 주인공에게 ‘일본’이라는 공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안의 장소인 것이다. ‘대안의 장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삭’과 부부의 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의 장소’ ‘일본’은 “장소의 위계”(place hierarchy)(임진희, 2019, 273)와 ‘민족’ 혹은 ‘인종’의 위계가 엄연하게 규정된 빈민가 ‘이카이노’(Ikaino)¹⁰⁾에 그녀를 유폐시킬 뿐 새로운 성원으로서 조금도 환대할 의지가 없다. ‘사람’이 아닌 ‘자이니치’ 집단의 일원으로 재(再)범주화된 ‘타자’(others)로서 또 다른 차원의 타인의 생경한 시선과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강제로 규정되었다. 무릇 “사람이라 함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도덕적 공동체—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사람이라 함’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김현경, 2021, 31). 그래야 비로소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사회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장소이므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장소의 영향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장소

10) 이카이노(猪籠野)는 오사카시(大阪市) 이쿠노구(生野區)에 있었던 마을 이름으로, “돼지를 기르는 들판”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원래 이 지역은 이카이노(猪籠野)로 불렸는데, 그 유래는 고대 한반도 특히 백제 유민들이 이곳에서 돼지를 사육하며 살았다고 해서 생긴 명칭이다. 자이니치들이 이곳에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반으로 해방 전부터 제주도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도일 한인들의 집중 거주지였다. 1973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지도상에서 지명은 사라졌다. (양명심(2016). 재일조선인과 ‘이카이노(猪籠野)’라는 장소-재일조선인발행 잡지를 중심으로 동양어문학, 67: 155-156;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3610>)

의존적”)(김현경, 2021, 57)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안의 장소’ 일본은 새로운 가족 ‘요셉’(Yoseb)과 ‘경희’(Kyunghee)의 환대 외에는 ‘순자’와 ‘이삭’을 전혀 환대하지 않는 ‘편견의 공간’을 제공할 뿐이다. ‘자이니치’ 그룹에 먼저 편입된 ‘요셉’과 ‘경희’ 또한 처절한 식민지 피지배자로서 소수자의 경험치가 축적되었을 뿐 멀리받는 냉혹한 현실을 비켜갈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자이니치’는 ‘사람과 동물을 같은 범주’(This place is fit for only pigs and Koreans.¹¹)(Lee, 2017, 100)로 내모는 일본사회 내에서 “장소의 소수자로서 ‘장소계층 사회’의 구조망에 (강제적으로) 편입된 것이다.”(임진희, 2019, 273-274)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식민지 ‘조선’의 ‘조선인’은 가차 없고 일방적으로 지정된 구획이자 경계 내에 어쩔 수 없이 구속되고 갇혀버린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식민지 지배자들이 설정한 ‘견딜 수 없는 냄새’(he animal stench was stronger than the smell of food cooking or even the odors of the outhouses. Sunja wanted to cover her nose and mouth...¹²)(Lee, 2017, 100)로 가득 찬 ‘오염’의 메타포 이미지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함몰된다(they have no choice but to live in squalor.... There’s nowhere for them to go.¹³)(Lee, 2017, 119).

‘일본인은 조선인을 더럽다고 생각’(The Japanese think Koreans are filthy.) (Lee, 2017, 119)하는데 실제로 조선인은 그렇게 더러운 것인가? 더글러스(Douglas)는 『순수와 위험』(Purity and Danger)에서 ‘더러움’을 장소에 대한 관념과 연결시켰다. 가령, “흑인 전용구역에 들어간 백인은 자신이 오염의 위험성에 노출되었다고 느낀다. 반면에 흑인은 (타자인 백인의 입장에서 규정된 차별이 적용되어) 오염원으로 전락한다(2002, 44-45; 김현경, 2021, 73). ‘오염의 위험성에 노출됨’과 ‘오염원으로서의 전락’은 ‘오염’의 메타포 이미지가

11) 이곳은 돼지들과 조선인들만 살 수 있는 곳.

12) 동물 냄새가 음식 냄새는 물론 화장실 냄새보다도 더 지독하게 났다... 코와 입을 막고 싶었지만.

13) 조선인들은 돼지우리 같은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에 고착되어 주류사회가 소수자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인종 및 민족주의적인 ‘차별’과 ‘비환대’의 정당화에 기여한다. 대신 ‘오염원으로 전락한’ 소수자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억압’과 ‘차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며 ‘장소’를 이동할 자유나 선택권이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타자의 이름으로 ‘더러운 곳’이라 정의된 그곳에서 그리고 타자의 시선과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파친코

‘자이니치’는 거주 장소는 물론 직업선택의 폭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식민지의 피지배자에게 낙인찍힌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경제적인 성공을 통하여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순자’의 둘째 아들 ‘모자수’(Mozasu)는 열여섯 살의 어린 나이에 ‘파친코’ 업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계기로 형 ‘노아’도 아들 ‘솔로몬’도 모두 ‘파친코’와의 인연이 이어진다. ‘파친코’는 많은 ‘자이니치’들이 종사하는 업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일본인의 편견과 멸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이다. 때문에 ‘파친코’는 ‘한국인’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의 한계를 의식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덜 불편한’(Lee, 2017, 253) 삶의 터전이자 장소이기도 하다. 물론 일본인들은 파친코 산업을 의구심과 적대감을 갖고 항상 예의주시한다(Lee, 2017, 488-489). 그리고 절대 ‘존경할만한’(respectable) 업종이 아니라 ‘노아’의 생각(Lee, 2017, 284) 또한 어린 시절부터 죽는 순간까지 변함 없이 유효하게 작동한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업종’이라는 ‘오염’의 메타포 또한 자이니치의 사유를 지배한다(I’m a Korean working in this *filthy* business.¹⁴⁾)(Lee, 2017, 383). 그럼에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파친코는 ‘자이니치’에게 민족적인 유대감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장소성’과 상징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파친코’는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14) 저는 이 더러운 업종에 몸을 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장소이기도 하다. 일본 사회에 ‘동화’하기로 선택한 ‘노아’도, 재일조선인 ‘노아’의 동생 ‘모자수’도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 결국 ‘파친코’를 생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이승연, 2019, 215) 숙명적인 대안의 ‘선택’이자 ‘장소’인 것이다.

하지만 ‘파친코’는 여전히 불안정한 대안의 ‘장소’이다. 때문에 끊임없이 또 다른 대안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대안의 장소 ‘일본’도 그리고 ‘파친코’도 궁극적인 ‘환대’의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자수’가 선택한 또 다른 대안의 ‘장소’인 ‘미국’은 ‘유미’(Yumi)와의 만남을 통하여 실마리가 마련되며 두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의 ‘파라다이스’를 함께 꿈꾼다. 그가 일하는 ‘파라다이스’(Paradise) 파친코 사업장의 사세가 확장되는 만큼 그의 꿈도 더욱 커진다.

‘모자수’와 ‘유미’를 이어준 통로는 다름 아닌 ‘영어’였고, 선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유미’를 에스코트 하는 과정에서 형 ‘노아’로부터 배운 ‘영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다 진지하게 이끌어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유미’는 기필코 언젠가는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로 가서 재봉사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한다. 해방과 전쟁 이후 일본에 살던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이나 남한으로 돌아갔지만 ‘유미’는 남북한 어디에도 특별한 애착을 느끼지는 않았다. ‘유미’는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을 마치 가난하거나 부끄러운 가족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일종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또 다른 끔찍한 장애물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굳이 한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유미’가 일본에 집착한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신을 거부하는 예쁜 계모 같았기 때문에 대신 로스앤젤레스를 꿈꾸는 것이다(Lee, 2017, 295).

하지만 이러한 ‘유미’와 ‘모자수’의 꿈은 채 실현되기도 전에 ‘유미’의 죽음으로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끝나 버린다. 너무도 일찍 ‘유미’와 사별한 ‘모자수’는 아들 ‘솔로몬’(Solomon)을 통하여 아내 ‘유미’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 엘리트 지식인으로 성장시켜 그동안 일본 내에서 받았던 온갖 편견과 멸시를 보상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모자수’의 의지

와 달리 뉴욕에서 성공적인 유학을 마치고 금융전문가가 되어 일본으로 돌아온 ‘솔로몬’은 잠시 가족들에게 ‘파라다이스’를 선사하지만 결국 ‘한국인’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주류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하고 배제되는 경험을 반복한다. ‘순자’와 ‘이삭’이 1933년 처음 일본 땅을 밟은 지 육 십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989년에도 여전히 제일 한국인은 ‘신분증’(They asked him for his identification card.)(Lee, 2017, 461)을 제시해야 하고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으며, 도쿄의 고급아파트는 임대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다(Lee, 2017, 444). ‘자이니치’에게 적용되는 ‘배제’와 ‘예외’는 그들에게 ‘일본’은 영원한 ‘비환대’의 ‘장소성’을 지닌 공간임을 각인시켜주는 일종의 의식이다. 주류의 일본인이 규정하는 범주에서 시대에 따라 ‘재일 조선인’, ‘자이니치’ 혹은 ‘재일교포’나 ‘재일 한국인’ 등 어떻게 호명하든 그들은 온전한 ‘성원권’을 허락받지 못하는 영원한 ‘이방인’인 것이다.

2. 거주지 기반의 장소성

거주지 기반의 장소성은 등장인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분화와 관련된다. ‘순자’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 미리 정착한 형 ‘요셉’과 ‘경희’ 부부의 집에서 거주한다. 그들이 정착한 공간은 오사카 내의 ‘자이니치’ 집단 거주지로 지정된 지극히 ‘불결하고’(filthy) 차별화된 지역에 위치한다. 이카이노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자이니치의 터전을 국한시키는 “거주지 분화(residential segregation)는 소수민족/소수자 집단이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Massey, 1985; 정수열, 2008, 513)에 획정되는 차별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상이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이니치’가 ‘주류사회’에 동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회나 환대의 개념이 아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주공간의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거주지 분화로 인한 차별과 멸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수자 집단에 가해지는 박대나 박해와 직결된다. 가령, 한국인은 일본의 천민집단인 ‘부라쿠

민’(burakumin)¹⁵⁾(Lee, 2017, 243) 보다도 열등한 지위의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¹⁶⁾ 때문에 ‘자이니치’가 거주하는 지역은 거주환경으로서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야말로 ‘생겨서는 안 될 마을’(a misbegotten village of sorts)이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아예 자이니치에게는 제대로 된 집도 임대하지 않으니’(The Japanese won’t rent decent properties to us.) 그들은 싸구려 판잣집(cheap and flimsy shacks)이 즐비한 이 지역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자이니치’는 ‘길가에다 볼 일을 보고’(defecated by a stoop not far from house)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잠든 어른의 모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ignoring the drunken man asleep in the alley), 그리고 ‘너털너털한 누더기를 걸친’(half-dressed in rags)(Lee, 2017, 100-101) 빈곤과 불결함을 상징하는 갖은 장면들이 일상으로 전개되는 열악한 환경과 공간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사람’과 ‘돼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지역의 지위가 강등되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과 위상도 동시에 강등되는 ‘장소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는 ‘거주지 분화’가 주택시장에서 인종 민족적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차별적 관행에 의해 유지되는 장소 층화론(place stratification framework)의 입

15) Burakumin(部落民 tribe people): 부라쿠민(일본어: 部落民 ぶらくみん)이란 전근대 일본의 신분제도 아래에서 최하층에 위치해 있었던 천민 및 신분제도 철폐 이후 근현대 일본에서도 여전히 천민 집단의 후예로 차별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특정 계층을 가리킨다. 아이누인, 재일한국인, 재일중국인, 류큐인과 함께 일본 내의 대표적인 소수집단이다 (<https://blog.daum.net/han0114/17047649>). 그리고 부라쿠민은 봉건 신분제 하의 최하층계층인 에타(穢多), 히닌(非人), 즉 가족의 도살, 가족의 처리, 형 집행 및 시신의 처리 등 살생과 관련되거나, 토착종교인 신도(神道)에서 부정하거나 천한 것으로 간주되던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자손으로 믿어진다. (조수미(2018). 오사카의 소수자 거주지역-차이와 낙인의 지리적 구성. 동아시아문화연구, 74: 214.)

16) “The Japanese didn’t want Koreans to live near them, because they weren’t clean, they lived with pigs, and the children had lice. Also, Koreans were said to be even lower than burakumin because at least burakumin has Japanese blood. (Lee, M. J. (2017).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243.)

“일본인은 한국인이 가까이에 거주하는 것을 꺼려한다. 한국인은 불결하며, 돼지와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에게 이가 들끓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천민집단이지만 최소한 일본인에 속하는 부라쿠민(burakumin) 보다도 열등하다고 한다.”

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Logan & Molotch, 1987). 왜냐하면 ‘조정’(steering), ‘지역 지위 강등’(blockbusting), 그리고 ‘특정 경제지역 지정’(redlining) 등 온갖 차별적인 관행들이 ‘자이니치’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종·민족적 편견에 기반하여 주류사회와 구분되는 거주 지역으로 분절시켜 그들을 특정장소에만 국한하여 거주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차별받는 소수민족 집단인 ‘자이니치’는 “주류 집단이 거주하는 공동체에서 열악한 거주공간만을 소비하게 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더라도 주류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보다 나은 주거지로 쉽사리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정수열, 2008, 514). 궁극적으로 그들은 ‘조선인’ 혹은 ‘한국인’이 그들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그리고 동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류사회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경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대’하는 대신 여전히 ‘경계인’이자 ‘주변인’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장소성’을 이런 식으로 여실히 드러낸다.

III. ‘사람’의 태생적인 정체성과 장소성

II장의 민족 기반 및 거주지 기반의 장소성에 관한 논의사항을 배경으로 본 장에서는 ‘노아’의 태생적인 정체성을 장소성과 연계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아’를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일본인’으로 대별하여 ‘사람’의 태생적인 정체성이 초국가적인 이주행위를 통하여 경험하는 ‘장소성’의 양상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평범한 사람

‘순자’의 아들 ‘노아’(Noa)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학교생활 또한 탁월한 적응력을 보이며 착실하고 자랑스러운 기대주로 성장한다. 하지만 학

교생활에서 비주류의 소수자 그룹으로서 겪는 어린 ‘노아’의 심리적인 갈등은 향후 그의 삶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자신의 태생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되고 싶다’ (He believed that he could enjoy going to school if he were a regular person and not a Korean.) 심리적인 지배현상은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경험하는 또래 집단의 ‘따돌림’ (The good students, who were all Japanese, the ones he admired, wouldn’t speak to him. They wouldn’t even look at him.¹⁷⁾) (Lee, 2017, 193)이라는 행동 코드로부터 학습된 ‘낙인찍힌’ 존재라는 열등감을 갖게 한다. 타자에 의해 주입된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노아’는 자신의 태생적인 DNA를 은폐하려는 강한 욕망을 품는데 이것이 일종의 삶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은폐의 욕망은 주류 집단으로부터의 ‘배제’ 대신 ‘포함’을 그리고 ‘멀시’ 대신 ‘환대’를 향한 일종의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코드로 이어진다.

‘노아’는 왜 ‘평범한 사람’(a regular person)이 되고 싶어 했을까? 이는 ‘환대’ 대신 ‘따돌림’을 당하던 ‘노아’에게 학교라는 공동체이자 사회는 그에게 최소한의 장소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환대’를 받고 사회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땅히 자신을 환대하는 장소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환대’는 자리를 내어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김현경, 2021, 26-27).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뜻이며, ‘사람됨’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김현경, 2021, 31). 그런데 ‘노아’를 포용해야 할 학교 공동체의 일원 특히 또래집단은 ‘따돌림’의 행위 코드를 통하여 ‘노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서 자격과 성원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노아’가 ‘평범한 사람’ 나아가 ‘평범한 일본인’(a regular Japanese)(Lee, 2017, 193)이 되고자 주류사회에 동화(assimilation)하고자 노력하는 일련의 과

17) 자신과 말도 섞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는.

정은 이주국에서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측정될 수 있는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와 이주국의 언어습득 정도와 체류 기간으로 측정될 수 있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Gordon, 1964)의 두 가지 양상을 모두 함의한다. ‘구조적 동화’와 관련하여 ‘노아’는 아버지의 죽음, 전쟁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학, 큰아버지 ‘요셉’의 병환과 약값 마련, 가난한 집안형편 등 갖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류사회에 진입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계속된다. 서점의 점원 생활을 하면서 와세다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한다. 와세다 대학 입학은 가족 모두의 위안이자 자부심의 상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삭’과 같은 지식인이 되고 싶었던 열망도 한몫을 했다 (Lee, 2017, 255). 학비 및 도쿄의 생활비 마련과 관련하여 차악의 타협을 한 어머니와 ‘고한수’의 도움 덕분에 결국 명문 와세다에 입학하여 엘리트 지식인으로 일본의 주류사회에 일견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 같다.

‘노아’가 어머니와 달리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자처한 성공한 재일 한국인 사업가 ‘고한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수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와세다 대학 입학을 통한 주류사회 편입의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절박함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고한수’가 한국인이며, 자신의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마다 도움을 주었던 인연과 기억, 그리고 졸업 후 그의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분명한 상환 계획 등 다양한 상황적인 요인에 의하여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수용하기로 한다. 대신 학업에 전념하고 그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을 택한다. ‘고한수’의 경제적인 지원을 수용한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소수의 한국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성공한 재일 한국인의 도움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2. 평범한 일본인

아무튼 ‘은인’(benefactor) ‘고한수’의 재정적인 지원 덕분에 더 이상 경

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고 마음껏 지적인 향유를 즐기며 보낸 대학시절은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물론 심리적인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인의 편견과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신의 행동 코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로’(He couldn’t say this to anyone else.)(Lee, 2017, 193) 어린 시절 체화된 ‘비환대’의 경험은 스스로 ‘혼자 지내는’(Noa kept to himself.)(Lee, 2017, 276) 방식을 택하고 의식적으로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피하면서 자신의 태생적인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동 코드를 선택(There were some Koreans at Waseda, but he avoided them, too, ...)¹⁸⁾하도록 작용한다(Lee, 2017, 276).

1) 동화(assimilation)

‘문화적 동화’와 관련해서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일본어를 잘했고 학교 성적도 탁월하였다. 게다가 영어 실력도 특출하여 동생 ‘모지수’에게 일본어와 영어를 직접 가르치며 두 형제는 문화적으로 일본 사회에 동화하고자 함께 노력하였다. 와세다 대학에서 디킨스(Dickens), 톨스토이(Tolstoy)와 괴테(Goethe) 등 대문호들의 작품을 영어 원서로 두루 탐독하며 일본 사회에서 보다 ‘차별화된’ 엘리트 지식인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한 변별적인 행동 코드를 선택한다(Lee, 2017, 276). 이 때 ‘노아’가 경험하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경험했던 온갖 멸시와 박해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충분한 최상의 ‘환대’이자 최고의 ‘향연’이었다.

‘구조적 동화’와 ‘문화적 동화’는 각기 이주국에서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언어습득의 정도, 그리고 체류기간 등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노아’의 와세다 대학 학생 신분은 곧 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징표이며 직

18) 캠퍼스에 한국인 학생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들과도 어울리고 싶지 않아 의식적으로 그들을 피하며 대학생활을 했다. ...

접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한 ‘일본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안정적인 발판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는 엘리트 지식인이 사용하는 일본어를 구사하므로 일본인 원주민의 일본어와는 품격 자체가 달랐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가능한 고급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탁월함까지 겸비하였기 때문에, 그는 ‘평범한’ 일본인이 아니라 ‘탁월한’(outstanding) 일본인으로서 그들의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2) 태생적인 정체성

그럼에도 ‘노아’를 진심으로 환대한 일본인은 그의 연인 ‘아키코’(Akiko)가 유일하다. ‘아키코’에게 ‘노아’는 ‘부라쿠민’보다 열등한 ‘자이니치’가 아닌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노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였으며, 두 사람만의 시간에는 ‘한국어’로 사랑을 속삭여 주길 원할 정도로 ‘노아’의 태생적인 정체성을 존중(Everything about him was fascinating to her.... In bed, she wanted him to speak Korean.)¹⁹⁾(Lee, 2017, 299)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아’와 ‘고한수’가 만나는 장소에 예고 없이 등장한 ‘아키코’가 야기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고한수’가 떠난 직후 ‘아키코’는 화난 ‘노아’에게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부끄러운지?’(Are you ashamed of me?)(Lee, 2017, 307) 묻는 대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게다가 ‘노아’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더욱 사랑한다는 진심을 쏟아낸다(... but I love that you are Korean. Koreans are smart and hardworking, and the men are so handsome....)²⁰⁾(Lee, 2017, 307). 이런 점에서 『파친코』에 등장하는 일본인 중에서 ‘자이니치’를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그리고 이카이노의 부정적인

19) 노아에 관한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환상적이었다.... 심지어는 두 사람이 함께 사랑을 나눌 때는 노아가 한국어로 말하길 원하는 정도였다.

20) 오히려 네가 한국인이어서 더욱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어. ... 난 네가 한국인이어서 더욱 사랑해. 한국인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니까. 게다가 한국 사람은 정말 잘 생겨거든.

이미지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성원권’을 가진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공간과 장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환대’한 사람은 ‘아키코’가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아’는 ‘아키코’의 진심을 수용할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극단의 비랑 끝에서 ‘차별’과 ‘멸시’로 점철된 부정적인 경험치들이 즉각적으로 소환되고 일본인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었다는 선부른 속단 때문에 현명한 판단력이 마비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탄로 난 ‘노아’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리고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는 소수자들이 타인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어느 정도인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가령, 아키코의 “네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도 당혹스러운거니?”(Is it that you are embarrassed that you are Korean?)라는 질문에 ‘노아’는 이렇게 반응한다.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거나’(Noa took a step back.)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행위’(He looked around to see if anyone could hear their argument.),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오히려 ‘아키코를 바라보는 모습’(He looked at her as if she was deranged.)(Lee, 2017, 307) 등의 행동 코드는 그동안 독자들이 지켜본 ‘똑똑하고 현명했던’ ‘노아’의 인성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 입은 ‘노아’의 영혼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치유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면 깊숙이 감춰져있던 ‘노아’의 ‘가면’이 아키코 앞에서 벗겨지는 순간 그저 속수무책일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이어지는 ‘아키코’의 한마디는 ‘노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 “그 분 너의 아버지 맞지? 너랑 똑같이 생겼어.”(Lee, 2017, 308). 출생의 비밀을 해체해버린 이 말은 ‘노아’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목사님’(pastor)이 아닌 혐오하는 ‘야쿠자’(yakuza)이자 ‘깡패’(gangster) 출신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철저히 경멸했던 비천한 출신(주류사회의 편견이 고스란히 체화된)이라는 정체성의 실체는 ‘자이니치’와 더불어 이중의 태생적인 한계와 그 굴레의 무게를 직감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평범한 일본인’으로 일본 사회

에 진입하고자 한 그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굴욕적인 사실은 ‘노아’가 그 길로 가족과의 일체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모티브가 된다.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낸 후 ‘일본어’로 쓴 짤막한 편지에서 자퇴한 사실과 향후 ‘고한수’에 대한 금전 상환 계획, 그리고 결코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종의 선언처럼 전한다. ‘한국인’ 가족에게 ‘일본어’로 쓴 짤막한 편지 한 통은 노아의 인간적인 ‘정체성’의 분화를 암시한다. 이는 그가 결코 ‘일본인’이 아님에도 그렇다고 ‘한국인’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 불안정한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신이 머무는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한 삶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음을 함의하는 또 다른 ‘장소성’의 양상을 드러낸다.

3) 자의적인 정체성_평범한 일본인

이후 16년 동안 가족과 단절한 채 ‘노아’는 나가노(Nagano)에서 ‘노부오 반’(Nobuo Ban)이라는 ‘일본인’으로 허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He is now Japanese.... Everyone in his world thinks he is pure Japanese.)(Lee, 2017, 379). 아이러니하게도 ‘파친코’를 생계수단으로 삼은 ‘노아’는 ‘고한수’로부터 지원받은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서둘러 상환한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후 네 자녀를 둔 ‘일본인’ 가장으로서 ‘평범함’을 가장한 채 살아간다(Everyone in his world thinks he is pure Japanese.)²¹⁾(Lee, 2017, 379).

이곳에서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노아’는 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철저하게 은폐했을까? ‘고한수’의 전언을 인용하면, “자신의 과거를 누구도 아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Because he does not want anyone to know about his past.)(Lee, 2017, 379). 자신의 과거는 바로 ‘한국인’이라는 그의 정체성과 생부가 ‘야쿠자’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21) 노아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순수한 일본인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이 노출되면 자신이 속한 일본사회의 공동체에서 절대로 ‘환대’받을 수 없는 태생적인 굴레가 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45세 중년의 아들 ‘노아’ 앞에 16년 만에 어머니 ‘순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그가 그토록 경멸하는 ‘고한수’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온 것이다.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 노아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생부가 고한수라는 사실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My blood father is Koh Hansu. That cannot change.”)(Lee, 2017, 383)고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다.

‘생부의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혐오하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야쿠자의 피’, 그리고 ‘열등한 한국인’(I suppose having yakuza in your blood... I can never be clean of him. ...I’m a Korean working in...)이라는 사실은 16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노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배하는 강력한 심리적인 압박감(This is my course.)(Lee, 2017, 383)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축적된 비환대의 ‘장소성’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경험치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예고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자신의 ‘정체성’ 탄로를 불안해하는 ‘노아’의 모습은 이어지는 장면에서 더욱 고조된다. ‘가족’과 ‘일터’의 모든 ‘일본인’이 그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공간에서 ‘배제’시킬 것(My wife ... Her mother ... My own children don’t know. My boss would fire me. He doesn’t employ foreigners.)(Lee, 2017, 383-384)이라는 극도의 압박감을 표현한다. 무조건적인 ‘환대’를 선사했던 사랑했던 ‘아키코’는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아’는 송두리째 내쳐질 자신의 처지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엄마, 어느 누구도 절대로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돼요...”(“Umma, no one can know-.”)(Lee, 2017, 383-384)라고

나가노에서 ‘노아’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일본 시민’(a Japanese citizen)이 되었다. 일본인의 신분으로 한국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어머니에게 말한다(Lee, 2017, 384). 그리고 조만간 집에 가서 ‘모자수’와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약속도 하고 서둘러 어머니를 돌려보낸다. 창밖으로 ‘고한수’의 차량에 올

라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본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순자’는 이튿날 ‘고한수’로부터 자신이 떠난 직후 아들이 자살했다는 비보를 전해 듣는다(Lee, 2017, 385). ‘노아’는 네 자녀가 온전한 ‘일본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흔들지 않기 위하여 죽음을 방패막으로 삼아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것이다. ‘자이니치’로서의 삶 – 그리고 와세다대 학생으로서의 삶 – 일본인 ‘노부오 반’으로서의 삶을 반추해보면 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환대’받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이사벨라’와 ‘한국계 중학생’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노아’ 또한 ‘사회적인 타살’을 당한 것이다.

학창시절에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배제’를, 대학 시절에는 오히려 자발적인 ‘환대’ 거부를, 그리고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는 나가노 시절은 자기기만이자 모독을 통하여 ‘노아’가 온전하게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 즉 장소는 단 한 뼘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일하게 언제든 환대받는 고향의 집조차도 그곳을 떠난 후 결국 다시 찾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16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의 재회는 오히려 노아에게 ‘정체성’의 은폐는 더 이상 불가능할 뿐더러 자신이 돌아갈 곳 또한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남은 유일한 선택지인 자살을 택함으로써 ‘비환대’의 공간에서 차라리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모독(mortification)의 어원에 죽음(mort)이 포함되어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김현경, 2021, 43). 노아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살을 선택할 순간 외에는 어느 한 순간도 자율적인 선택을 허용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의 죽음은 더욱 더 ‘사회적 타살’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파친코』의 서사를 중심으로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경계

인'이자 '주변인'의 범주에 속한 재일 한인, '자이니치'의 삶의 궤적을 '사람, 장소, 환대'의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소수자' '자이니치'들이 다수의 일본인 공동체로 이주하는 초국가적인 장소의 이동은 그들에게 '환대' 대신 무차별적인 '차별'과 '편견' 그리고 '냉대'로 접철된 삶의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이자 정서적인 토대(임진희, 2019, 272-273)를 제공하는 '장소성'을 중심으로 '민족', '거주지 분화', 그리고 '태생적인 정체성' 기반의 측면에서 『파친코』의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경험하는 디아스포라적인 삶의 양상 및 행동 코드를 '환대'의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 기반의 장소성'에서는 의식적으로 '비가시적인' 삶을 선택해야 하는 '주변인'이자 '경계인'으로서의 삶으로 내몰리는 '잠재된 편견'의 경험치를 '자이니치'와 '파친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원주민인 일본인 주류 집단이 강제로 규정한 '오염'의 메타포 이미지를 '자이니치'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들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함몰시켜버린다. 때문에 '자이니치'들은 주류 집단이 규정한 인종 및 민족주의적인 '차별'과 '비환대'를 정당화하는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거주지역도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자이니치'에게 적용되는 '배제'와 '예외'는 영원히 그들에게 '일본'이라는 국가는 '비환대'의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성'을 드러낸다. 주류의 일본인이 규정하는 범주에서 시대에 따라 '재일 조선인', '자이니치' 혹은 '재일교포'나 '재일 한국인' 등 어떤 식으로 호명되든 그들은 '일본' 공동체에서 온전한 '성원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영원한 '이방인'에 그치는 것이다.

둘째, '거주지 분화 기반의 장소성'과 관련하여 일본의 천민 집단인 '부라쿠민' 보다도 열등한 지위의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자이니치'는 그들의 지역마저도 '사람'과 '돼지'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지위가 강등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과 위상도 동시에 강등되는 '장소성'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일본인은 '한국인'이 그들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그리고 동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대' 대신 여전히 '경계인'이자 '주변인'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셋째, ‘태생적인 정체성 기반의 장소성’에서는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일 본인’으로 일본사회에 동화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노아’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장소성’을 분석하였다. ‘자이니치’로서, 외세다대 학생으로, 그리고 일본인 ‘노부오 반’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반추해보면 ‘노아’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환대’받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배제’와 ‘거부’, ‘자기기만’과 ‘모독’을 통하여 ‘노아’가 온전하게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 즉 ‘장소’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유일한 선택지인 자살을 택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인 타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친코』 해석의 관점과 범주를 확장하여, 환대하는 혹은 환대받는 디아스포라 문화 풍토의 확산을 통한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낮추고, 디아스포라의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장소를 택하든 그들이 선택한 공동체 안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인정할/받을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우리 안의 디아스포라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이주자들의 경험치가 함의하는 성격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유의 확장을 지향한다.

본고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지만 사유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다 넓은 의미의 ‘장소성’을 포괄하는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국가의 정의—‘국가’(nation)란 상상의 정치 공동체이다—태생적으로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주권을 부여하는 상상의 정치적인 공동체²²⁾(Lee, 2017, 324)를 함의하는—는 디아스포라에게 유효한가? ‘순자’와 그녀 가족의 디아스포라적인 삶에서 국가는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 장소/속성인가? 디아스포라 자이니치는 애초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초국가적인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에 양쪽 어디에서도 ‘성원권’에 해당하는 ‘주권’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

22) Nation is an imagined political community—and imagined as both inherently limited and sovereign.

대의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은 그들이 정주하는 ‘장소’가 부여하는 ‘환대’를 누릴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배제되는 ‘비환대’의 범주에서만 머물러야 하는가? 그리고 초국가적인 이동성을 전제하는 상황에서 환대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주체화와 타자화의 개념, 상호간의 관계의 불평등성, 타자화된 대상으로서 이주민의 자기 장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본고는 논의의 성격상 『파친코』가 지향하는 서사의 전체적인 양상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자이니치’의 목소리가 스스로가 아닌 타자의 시선과 입장에서 들려지고 해석되는 측면은 ‘후기 식민주의’(post colonialism) 및 ‘서발턴’(subaltern)의 관점에서 논의할만한 다층적인 소재를 함의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와 더불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평의 확장 측면에서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초국가적인 이동성이 갖는 해석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주제어】 환대, 디아스포라, 파친코, 장소성, 자이니치

[참고문헌]

- 강유진 (2019).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교양학연구*, 9, 253-261.
- 권향숙 (2012). 조선족의 일본 이주와 에스닉 커뮤니티: 초국가화와 주변의 심화사이의 실천. *역사문화연구*, 44, 3-34.
- 김유순 (2018). 디아스포라 문학에 발현된 생존전략. *다문화콘텐츠연구*, 28, 61-92.
- 김춘식 (2009). 소수집단 문학의 정체성—기억, 이산, 장소. *비평문학*, 34, 111-132.
- 김현경 (2021).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다음백과 (2022. 01. 05.). 이카이노(猪籠野).
- 출처: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3610>
- 배정환 (2021).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인종주의 담론과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 *경찰학연구*, 21(3), 183-208.
- 세계삼한역사연구 (2021. 12. 05.). 부랴쿠민.
- 출처: <https://blog.daum.net/han0114/17047649>
- 손영창 (2012). 테라다의 무조건적 환대와 타자성. *프랑스 문화 연구*, 24, 97-127.
- 손영희 (2020).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타난 경계인의 실존양상. *영어영문학*, 25(3), 65-86.
- 송화섭 (2019). 이주사회에서의 환대의 권리. *비교문화연구*, 56, 65-86.
- 양명심 (2016). 재일조선인과 ‘이카이노(猪籠野)’라는 장소 - 재일조선인발행 잡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7, 153-176.
- 오테영 (2018). 식민(지)의 기억과 전후 연대의 상상력 - 고바야시 마사루의 『쪽발이』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14, 111-140.
- 이대희 (2015). 민족의 개념: 국민과 종족 사이. *21세기정치학회보*, 25(3), 45-64.
- 이상봉 (2010).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 在日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視角. *韓日民族問題研究*, 18, 107-146.
- 이수자 (2006).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현되는 문화혼성성.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191-228.
- 이승연 (2019). 생존을 위한 도박. 『파친코』를 통해 보는 자이니치의 삶 『파친코』. *아시아여성연구*, 58(3), 209-216.
- 임지연 (2013). 자기서사 글쓰기에서 타자성과 윤리성의 문제. *작문연구*, 18, 141-173.
- 임진희 (2003). 한국계 미국 여성문학에 나타난 포스트식민적 이산의 미학. *여/성이론*, 9, 226-254.
- 임진희 (2019). 민진 리의 『파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

- 미디어논문지, 9(8), 271-280.
-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조수미 (2018). 오사카의 소수자 거주지역-차이와 낙인의 지리적 구성. *동아시아문화연구*, 74, 207-242.
- 한국학술정보(KCI) (2022. 04. 09). 주제어 'hospitality' 포함 논문 리스트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List.kci>
- 홍경표 (2002). 미주 한인 이민소설 연구-초기 이민세대의 자전적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78, 591-613.
- CNN (2021. 12. 05.). Isabella Izzy Tichenor's Death, 'It's everywhere.' Fed up with racist bullying, students across the US are walking out and protesting hate. 출처: <https://edition.cnn.com/2021/12/05/us/racist-bullying-school-incidents/index.html>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gan, J. R. & Molotch, H. L.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ouglas, M. (2002). *Purity and Danger*. New York: Routledge.
- Massey, D. S. (1985).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and empirical review.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9(3), 315-350.
- Massey, D. S. & Denton, N. A. (1985). Spatial Assimilation as a Socioeconomic Outco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1), 94-106.
- Lee, M. J. (2017). A Conversation with Min Jin Lee.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491-502.
- Lee, M. J. (2017).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 Relph, E. C.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김현주, 김승희 옮김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Tuan, Y. -F. (2005). *Space and Place*. 윤영호, 김미선 옮김 (2010). *공간과 장소*. 서울: 사이.

[국문초록]

본고는 『파친코』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경계인’이자 ‘주변인’의 범주에 속한 ‘자이니치’의 삶의 궤적을 ‘사람, 장소, 환대’의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초국가적인 장소의 이동을 거친 일본 거주 한국인 ‘자이니치’들에게 일본(인)이 ‘환대’ 대신 무차별적인 ‘차별’과 ‘편견’ 그리고 ‘냉대’로 점철된 삶의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파친코』의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사람)이 경험하는 디아스포라적인 삶의 양상과 행동 코드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이자 정서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장소성’ 즉, 장소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민족’, ‘거주지 분화’, 그리고 ‘태생적인 정체성’ 등 세 가지 측면(장소)에서 ‘환대’의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 기반의 장소성’에서는 의식적으로 ‘비가시적인’ 삶을 선택해야 하는 ‘주변인’이자 ‘경계인’으로 내몰리는 ‘잠재된 편견’의 경험치를 ‘자이니치’와 ‘파친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거주지 분화 기반의 장소성’과 관련하여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자이니치’는 그들의 거주 지역의 지위 강등과 더불어 그곳 ‘사람’들의 신분과 위상도 동시에 강등되는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태생적인 정체성 기반의 장소성’에서는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일본인’으로 일본 사회에 동화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노아’의 정체성 형성의 본류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파친코』 해석의 관점과 범주를 확장하여, 환대하는 혹은 환대받는 디아스포라 문화 풍토의 확산을 통한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낮추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장소를 택하든 그들이 선택한 공동체 안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인정할/받을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안의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이주자들의 경험치가 함의하는 성격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유의 확장을 지향한다.

[Abstract]

**A Study on *Pachinko*'s Placeness Narrative:
Focusing on the Concept of People, Place, and Hospitality**

Chun, Hyunju (Shinhan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concept of “people, place, and hospitality” in the trajectory of the life of the Zainichi, who are not Japanese or Korean but belong to the categories of “boundary” and “marginal” beings, focusing on the “placeness” narrative of *Pachinko* (2017) written by Min Jin Lee. The concept of “hospitality” is applied to the life patterns and behavior codes of the diaspora experienced by the protagonist and characters (people) in *Pachinko*, focusing on “placeness” that provides an emotional foundation and a political and economic ideology that dominates human life (place). Thus, its placeness is discussed from three aspects: “ethnicity”, “residence segregation”, and “person’s/people’s native identity.”

First of all, “placeness based on ethnicity” discusses the experience of ‘latent prejudice’, which is driven as a ‘peripheral’ and ‘marginal’ being who has to consciously choose an ‘invisible’ life, focusing on ‘Zainichi’ and ‘pachinko.’ Second, the “placeness based on residence segregation”, searches for the status of ‘Zainichi’, who are treated as strangers, being downgraded by interlocking with that of their residential area at the same time. Then, in the “placeness based on person’s/people’s native identity”, the origin of identity formation of ‘Noah’, who longs for assimilation into Japanese society as ‘ordinary person’ and ‘ordinary Japanese’, is traced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expand the perspective and scope of interpretation of *Pachinko*, lowering the barrier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rough the spread of offering or receiving hospitality in the diaspora cultural climate; 2) to expand the horizon of recognition that can be given or taken in hospitality as a “regular” person within the community of their choice no matter what place the diaspora chooses; and 3) to transcend fundamental thinking so that the character implied by the experiences of numerous migrants who lead the diaspora life in Korean society can be replaced in a more positive way.

【Keywords】 hospitality, diaspora, *Pachinko*, placeness, Zainichi

논문투고일: 2022년 2월 28일 / 논문심사일: 2022년 4월 2일 /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4일

【저자연락처】 transju@shinhan.ac.kr; wisepearl33@gmail.com